

卷頭言

'89서독發明品展示會 受賞者 歡迎式에 부쳐



受賞者 家族親知와 發明人 여러분을 모시고 發明을 통해 우리민족의 우수한 頭腦를 海外에 誇示하여 國威를 선양하고 돌아오신 수상자 여러분의 凱旋을 裏心으로 歡迎합니다.

'89서독國際아이디어 發明 · 新製品展示會에서 세계 각국의 많은 발명품과 겨루어 15點의 賞을 受賞하는 큰 成果를 거둔것은,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.

특히 이번 성과는 受賞者 여러분은 물론 우리 모두의 영광으로 發明史에 영원히 記錄되어 찬란히 빛날것이며, 오늘의 영광을 위해渾身의 努力を 다하신 受賞者 및 그 가족친지 여러분께 祝賀와 더불어 激勵의 말씀을 드립니다.

또한 이번 서독국제 발명품전시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特許廳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深深한 감사를 드립니다.

발명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청에서는 지난 82년부터 국고예산에서各種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며, 그 지원은 해를 거듭하면서 每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더우기 今年부터는 제네바 · 뉴욕 · 서독에서 열리는 국제 발명품전시회 출품비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支援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가일충 북돋기 위한 실로 큰 配慮라 할 수 있겠습니다.

發明을 통한 技術革新만이 우리 產業을 發展시킬수 있다는 사실은 발명인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.

부디 오늘의 영광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發明研究에 더욱 정진하셔서 우리나라 발명풍토조성에 밑거름이 되어주심은 물론 나아가서 國家產業發展에 더 큰 寄與를 하여주시실 것을 당부하면서, 끝으로 우수한 發明創出로 오늘의 영광을 안으신 受賞者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祝賀를 드리며,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事業이 더욱 발전되시기를 기원하면서 歡迎辭로써 가름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 <♣>

1989年 11月 7日

本會 常勤副會長 李泰燮